

자연과 건축의 역설적 조화

Paradoxical Harmony of Nature and Architecture

한지형 / 아주대학교 건축학부
by Han, Ji-hyeong

땅은 건축의 존재 이유가 되고, 이를 둘러싼 자연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관대함으로 오만할 수 있는 건축에 겸손함을 일깨워주곤 한다. 자연에 인간의 손길이 더해져야 하는 순간마다 느끼게 되는 부담감은 아마도 건축의 행위가 그의 유기적 속성에 반하게 되고 훼손시키게 될까봐 염려하는 차원에서 기인하는 것은 아닐런지.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건축의 원리에 기반을 두기 보다 땅을 이해하고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을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내재적, 표상적 성격이 서로 다른 자연과 건축이 과연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일까? 역설적 조화를 통해 서로의 존재를 강조하는 절제의 건축, 대비의 건축을 추구하고자 한 다음의 두 프로젝트에는 이러한 고민이 담겨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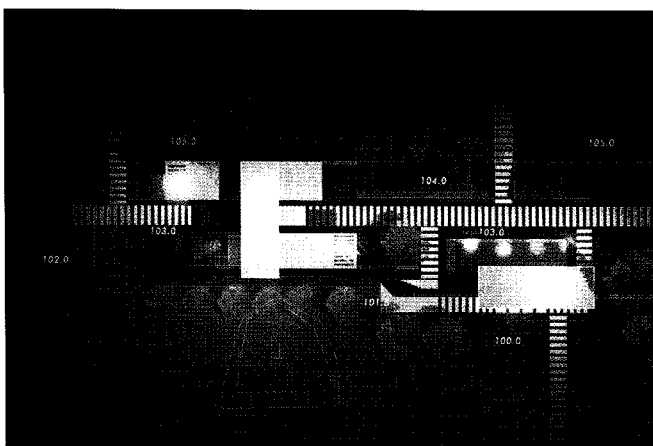
가평 백둔리 주택

가평의 한적한 마을 산 어귀에 위치하고 있는 자연 지형(Topology)에 대한 해석이 이 주택의 배치와 공간 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땅을 어떻게 쓰면서 균형감있고 조화로운 배치를 할 수 있을까? 땅 레벨 변화의 정도가 크고 굴곡이 심한 땅의 조건을 긍정적으로 이용하여 공간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함으로써 이 장소에 맞는 설계에 이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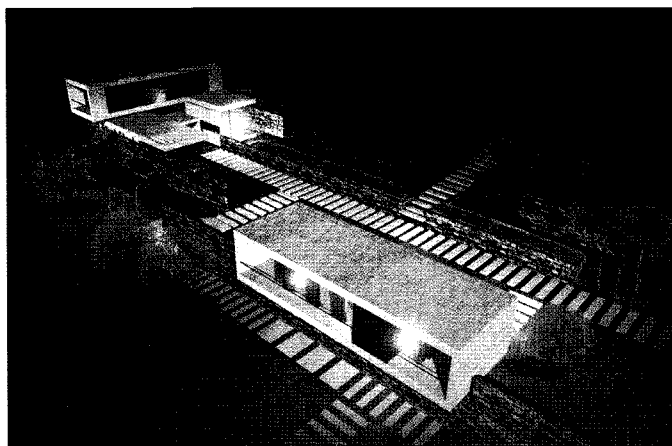
기존 경사 지형의 조건을 신중하게 고려하면서 대지에 순응하면서 절제된 인공미를 결부시키기 위해, 땅의 생김새와 주변을 해석하면서

합리적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 곳이 평지가 아닌 경사지이기 때문에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필연적으로 생기게 되었는데, 토사 흐름과 물에 대한 배수처리를 합리적으로 하여 집터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여기에 3개의 평행한 벽을 둬으로써 이 벽들이 중요한 공간적, 구조적, 시각적 역할 등의 다중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 역할 중 하나는 땅의 흐름에 맞는 배치로 배수처리와 연관되어 있으며 자연적 담이 집의 벽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함으로써 단순히 공간을 구분짓는 독립된 가벽이 아닌 집의 연장으로 인식시키는 것이다. 또 다른 역할은 레벨의 차이를 극복하면서 공간을 구분짓는 낮은 구획담을 끼고는 낮은 관목 식재나 텃밭 가꾸기 등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개 영역으로 구분됨으로써 시선의 변화와 동선의 흐름을 유도하는데 이렇게 첫 번째 만나게 되는 벽은 집 전체 구성에서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건축 형태의 단순하고 정제된 표현으로 건축을 구현하고, 지면과 연결된 거친 재질의 담과 떠있는 차가운 사각형 볼륨의 대비가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주택의 진입에서부터 단계별로 경험하게 되는 공간의 시퀀스적 변화가 있으며 내외부 공간의 투과 작용으로 안과 밖이 하나가 된다. 자연스러운 영역구분과 시선의 처리가 다양하여 건축적 시퀀스의 완급이 조절되고 있다. 다음으로 펼쳐질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유도하면서 어느 지점에 다다랐을 때 모습을 드러내는 수법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공간의 긴장감과 완화를 의도하였다. 그리고 차



〈그림 1〉 평행한 3개의 벽으로 경계를 구분하고 흐름을 만들면서 자연 경사에 순응하도록 공간 구성을 한 가평 백둔리 주택의 배치도



〈그림 2〉 자연과 건축의 대비되는 조화를 보여주는 조감도



〈그림 3〉 진입로에서 바라본 주택의 모습



〈그림 4〉 준공 당시의 모습(2009)

경을 위한 액자 효과를 적극 이용하여 집안에서 계절의 변화를 감지하고 자연과 소통하는 것을 건축적 매개 장치를 통하여 받아들여지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인간과 자연의 거리를 조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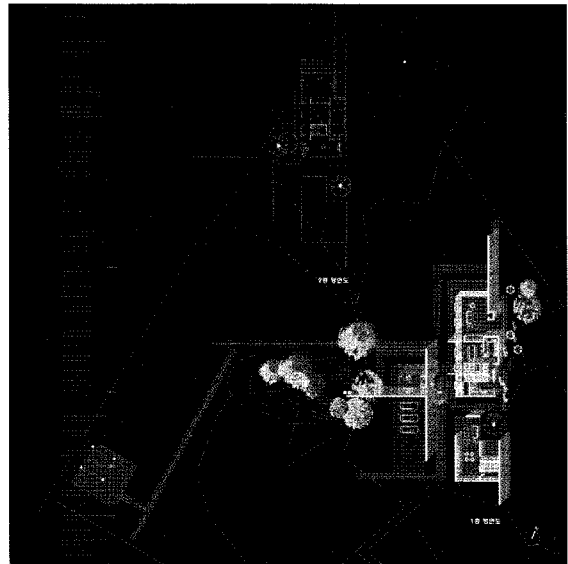
이와 같은 건축 공간의 경험적이고 시각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 융통성있는 공간계획으로 변화 가능성에 대처하고자 하였는데, 사용 가족 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아버지의 사적인 공간 영역, 공용 공간 영역, 아들 가족 공간 영역, 손님 공간 영역 등 공간의 성격별 영역의 분할 관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때에 따라 공간의 융통성있는 개폐가 가능하고 냉난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설계에 반영되었다. 또한, 별채는 외부로 연결된 출입문의 독립적 설치로 아래층과 위층을 따로 따로 쓸 수도 있고, 하나로 연결하여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차후 증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둔 배치 계획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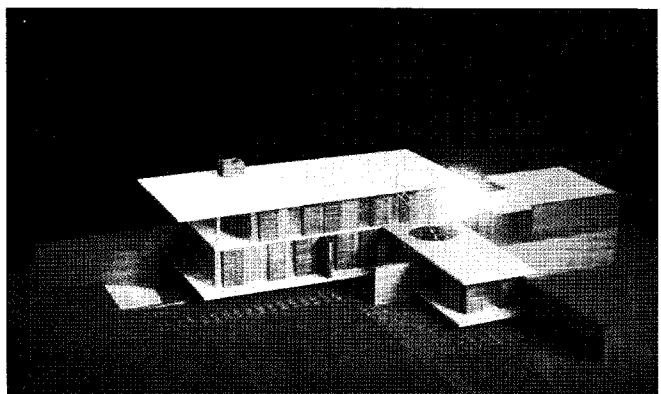
양평 수입리 주택

남한강의 시원한 풍광을 안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티에 한적한 삶을 담고자 한 이 집은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됨을 꿈꾸는 한편의 시와도 같다. 산과 강을 바라보고 있는 이 집의 마당은 아마도 세상 모두를 품고 있는 듯하다. 이 장소가 지닌 잠재적 가치를 끌어내고 일상의 삶을 담아내기 위해 건축과 랜드스케이프(Landscape)를 일체화하여 설계하고자 하였다. 즉, 땅이 가진 맥락, 주택 프로그램의 분리와 건축주의 요구 등을 받아들여면서 기능을 충족시키고, 건축과 랜드스케이프가 조화되는 자연의 일부가 될 수 있는 주택을 만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연의 풍경, 인공의 형태, 인간의 행위가 소통할 수 있는 열린 주거 공간, 주변 자연 환경과 건축 공간의 통합 등으로 나타나는 인공과 자연의 대비와 조화를 이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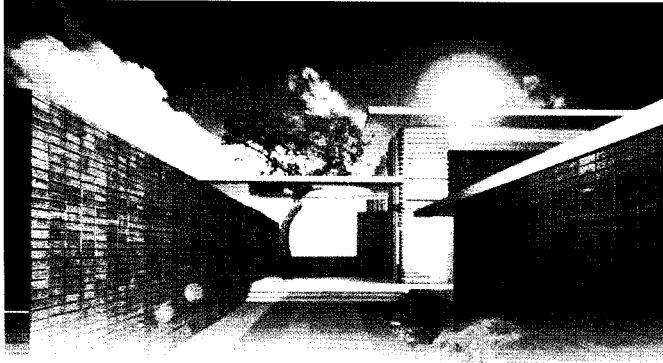
이 주택 설계에 있어서도, 가평에서와 마찬가지로, 담은 중요한 공간적 의미를 창출하는 중요한 요소로 도입되었다. 눈앞으로 넓게 펼쳐진 풍경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진입로를 따라 우후죽순으로 개발되어 눈을 어지럽게 만드는 온갖 것들을 거쳐야만 한다. 이러한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단절이라도 시키듯이 뻗어있는 담을 따라 들어가면 정적이고 평화로운 공간으로 유도된다. 여기에서 담은 경계의 구분 역할 뿐만 아니라 마당의 내향성을 또한 확보해준다. 또한, 수평적으로 펼쳐진 구성의 주 요소인 담은 집의 일부로 이어져 구조체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다시 외부로 뻗어나가 영역의 확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대지에 남아있던 기존의 작은 건물을 리노베이션(renovation)하여 주택의 일부로 편입시키고, 주생활이 이루어지는 본채와 서재의 기능을 갖는 사랑채로 구분하고, 강가에 정자가 배치시킴으로써 주택의 전체를 구성하였다. 담을 따라 진입하여 중앙에 나무가 심어진 반(半) 외부공간이 본채와 사랑채를 분절시키면서 집의 본격적인 입구가 된다. 그리고, 나눔과 연결을 동시에 고려하여 남한강과 마당을 걸터앉아 볼 수 있는 툇마루가 두 채를 연결해주고 있다. 사랑채의 반투명한 재질인 유리와 목재 프레임이 한옥의 창호지 문을 떠올리게 하고, 문을 열면 언제라도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다. 강가에 면하여 배치된 정자는 자연과 인간이 일체감을 가지게 되는 공간이 되며 외부화 된 내부가 되고 있다.



〈그림 5〉 양수리 주택의 배치도와 2층 평면도



〈그림 6〉 수평적으로 균형있게 펼쳐진 공간구성을 보여주는 주택 모형



〈그림 7〉 동선 유도와 공간 분절을 보여주는 담과 진입로의 모습



〈그림 8〉 마당에서 바라본 본채와 사랑채의 모습

이 주택의 설계는 또 다른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적 정서와 조형의 의미를 담고 있는 집을 만들기 위해 우리 한옥의 공간적, 형태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되, 절제된 건축 형식으로 번안하였다. 또한, 나무, 전돌 등 자연 재료의 은은한 느낌을 살려 단순하고 절제된 건축형태와 결합시킴으로써 사는 사람의 취향과 격조를 담아내고자 하였다.

내부 공간에서도 절도있는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열린 조망이 가능한 2층 주인침실과 연결된 테라스와 아래층 거실의 넓은 유리창은 내외부의 상호 관입을 가능하게 하였고, 식당 공간을 수직적으로 열어놓음으로써 상하 연결된 공간이 형성되기도 한다. 이것은 거주자의 일상적 편의성과기호를 고려한 합리적 내부 공간 구성과 땅이 가진 잠재적 가치를 건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채워짐과 비워짐이 하나가 되어 승화되었고, 내외부 공간의 연속성이 공간의 긍정적 모호함을 이끌어낸다.

뒷마루의 떠있는 바닥면과 시원하게 뻗어나온 지붕들 사이에서 이 집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의 커를 두는 듯 수평적으로 펼쳐진 집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대지에 밀착되어 뻗어나가듯 배치된 채들과 담들이 함께 한다. 열림/닫힘, 따뜻함/차가움, 가벼움/무거움, 수평/수직, 단순성/복합성 등의 대비적 공간 구성과 형태 표현에 의해 내외부 공간의 극적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다. 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이 집에 깃든 멋과 정취를 상상하면 마음이 즐겁다.

건축설계의 방법에 정도는 없지만 우리는 항상 무엇이 더 좋을지, 그리고 무엇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건축은 자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함께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곤 한다. 건축과 자연의 역설적 공존 미학을 만들어가기 위해. ■